

외부 사조 유입과 북한군 의식변화 실체

김 병 욱* · 김 영 희**

- I. 문제제기
- II. 북한군 의식변화와 외부 사조 유입
- III. 외부 사조 유입 유형에서 본 실태와 원인
- IV. 외부 사조 유입의 영향요인과 의식변화
- V. 결론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북한군 외부 사조 유입 실태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이것이 군의 의식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변화의 실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외부 사조에 대한 개념정리와 함께 이것의 유입·유형을 구분하였고, 북한에서 발간된 군 관련 교양자료와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해 이를 살펴보았다. 이어 민간인 집단과 달리, 군 집단의 의식변화의 핵심이 계급의식임을 밝혔다. 외부 사조 유입에 따른 영향은 전쟁을 싫어하거나 두려워하는 등 계급의식의 질적 변화와 거리가 먼 배금주의나 개인 이기주의 확산 등에 국한되고 있다. 외부 사조 유입이 내부적 요인에 의해 추동되는 경향을 찾아보

기 어려우며 탈영인 경우 계급의식의 변화가 원인으로 작용한 경우는 적다. 이러한 점에서 외부 사조 유입에 따른 북한군 의식변화는 의식의 질적 측면보다 양적 측면의 변화와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주장하는 북한군 의식변화라 하면, 현재로써는 과거에 비해 의식수준이 낮아진 것(양적 변화)을 계급의식이 (질적 변화)변화 된 것으로 보는 일종의 착시현상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외부 사조, 계급의식, 정신전력, 유입경로, 의식변화, 착시현상

I. 문제제기

2003년 종합시장의 등장과 더불어 북한주민들 속에서는 정치생활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경향이 발로되는 등 의식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찍이 북한은 고기가 물을 떠나 살수 없는 것처럼 군대가 인민을 떠나 살수 없다며 군민일치를 강조해 왔으며 주민들의 의식변화에 따른 영향은 북한군인들의 의식에도 미치고 있다. 그래서인지 북한군인들의 의식도 변화되

* 동국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 강사
** 한국정책금융공사 북한경제팀장

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이와 상반되게 군인들의 의식수준이 여전히 높다는 탈북군인들의 응답도 찾을 수 있다. 뒤에서 상세히 논의하겠지만, 탈북군인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북한군의 사상무장이 남한보다 월등하다는 응답이 70.5%,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67.5%를 차지하고 있다.

왜 이러한 상반되는 주장이 제기된 것인가? 의식이 변화되었다는 것과 의식수준이 낮아졌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의미이다. 예컨대 북한군에서 많이 발생하는 탈영을 들 수 있다. 이것이 전쟁 공포증에 따른 체제수호정신이 없어졌기 때문이라면 의식의 질적 변화로 볼 수 있지만, 배고픔에 따른 것이라면 의식의 양적 변화, 즉 의식수준이 약화된 것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민간인 집단이 아닌 군 집단의 의식변화를 살펴보려면 군 집단의 의식변화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파악해야 한다. 그것은 국토건설이 주된 과제인 민간인 집단에 비해 군 집단은 체제수호가 기본인 것으로 하여 의식변화의 핵심이 다르기 때문이다.

북한군 의식변화에는 북한체제가 갖고 있는 내부적인 모순과 함께 외부 사조 유입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것은 외부 사조가 사회주의 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사회주의권의 개혁·개방 시 군의 반란, 중립화에 기여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한미 대비 군사력 열세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신전력¹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수단으로 삼고 있어 이를 약화시키는 외부 사조 유입을 극도로 경계한다. 이 부분 연구자들이 북한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민간인 집단 대비 군 집단 의식변화의 상관성에 관심을 갖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군 외부 사조 유입 실태에 대한 고찰을 통해 군의 의식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변화의 실체를 살펴보려 한다.

현재 외부 사조 유입에 따른 군의 의식변화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북한사회 전반에 대한 외부 사조 유입과 관련해 나온 연구로는 박대광과 김진무의 “북한으로의 외부 사조 유입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² 이 연구는 북한주민들에게 외부 사조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및 촉진하면

¹ “정신전력은 모든 장병들이 지휘관을 중심으로 투철한 군인정신, 엄정한 군기, 충천된 사기, 공고화된 단결로 부여된 임무를 능동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조직화 된 전투의지력”을 의미한다. 국방부, 『정신전력 지도 지침서』 (서울: 국방부, 1997), p. 21.

² 박대광·김진무, “북한으로의 외부 사조 유입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국방정책연구』, 제28권 1호 (국방연구원, 2012), pp. 161~188.

북한체제의 모순에 대한 비판능력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외부 사조 유입의 행태를 밝히는데 이어 일반주민들의 의식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북한군의 의식변화는 병종별, 주둔지역별, 계급별로 차이가 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군의 일반적인 의식(변화) 행태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의식변화의 핵심을 밝히고 이것을 외부 사조 유입과 연관 속에서 살펴보는데 관심을 두려 한다.

II. 북한군 의식변화와 외부 사조 유입

1. 의식의 개념과 북한군 의식변화

북한군 의식변화를 논의하려면 인식과 의식의 차이, 민간인 집단에 비한 군 집단 의식변화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가. 인식과 의식의 차이

인간의 사고와 관련한 표현수단인 인지와 인식, 의식은 개념상 다른데 사전적 정의, 사고기초, 표현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물현상을 파악하는데서 인지가 무엇이라고 인정한 것에 기초한다면, 인식은 자체적으로 분별한 것에, 의식은 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 것에 중심을 두고 있다. 의식은 사회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에 대한 개인적 혹은 집단적 차원의 정신적 및 관념적 현상의 총체 또는 이러한 관념과 사상을 의미한다. 무의식 상태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행위로는 자극에 대한 무조건 반사를, 무인식 하의 행위로는 전철이나 버스, 회사의 출입구를 지날 때 전자카드로 인식시켜 출입이 가능하도록 한 무인식 출입시스템을 들 수 있다. 또한 무인지 상태의 사례는 고령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치매현상을 들 수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인지와 달리 인식과 의식은 그 수준이 높아(낮아)졌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양적 측면에서의 논의가 가능하다. 이로부터 북한군의 의식변화를 질적 및 양적 측면에서의 변화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 인지, 인식, 의식의 차이

구분	인지	인식	의식
사전 정의	어떤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여 앎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앎	사회적·역사적으로 형성된 감정이나 견해나 사상
사고 기초	두뇌의 수동적 작용	두뇌의 능동적 작용, 주관적 가치관 중심	두뇌의 능동적 작용, 객관적 가치관 중심
표현	무인지 (치매현상)	무인식 (무인식 출입시스템)	무의식 (무조건 반사)
	상황을 인지하다.	인식이 변화되었다. (높다/부족하다/바뀌다)	의식이 변화되었다. 의식수준이(높다/낮다) 의지, 의욕, 의도
사례	자극을 인지하다.	컴퓨터가 인식한다.	통일의식조사, 인권의식

양적 측면에서의 의식변화가 체제수호정신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거나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질적 측면에서의 의식변화는 염전사상이니³ 무저항주의외⁴ 같이 충을 버리거나 돌리는 것과 같은 정치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식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외부적 요인은 내부적 요인보다 높은 수준의 의식변화를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내부적 요인인 경우 당국의 선전 속에 희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군 의식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적 요인은 의식수준의 변화에, 외부적 요인은 의식내용의 변화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두 가지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하나는 내부적 요인이 양적 측면에서의 의식변화를, 외부적 요인은 질적 측면에서의 의식변화에 영향을 준다

³ “모든 전쟁을 덮어 놓고 싫어하거나 두려워하는 사상. 염전사상은 부르주아평화주의의 표현이며 수정주의의 발현이다. 염전사상은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전쟁관점에 근본적으로 대치된다. 염전사상에 물 젖으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야망을 더욱 조장시키고 전쟁의 위험을 크게 하며 혁명의 전취물을 맡아 먹고 제국주의자들에게 예측되는 결과를 가져 온다. 염전사상은 전쟁공포증에 그 사상적 근원을 두고 있다. 염전사상을 극복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근로자들을 높은 계급 의식, 혁명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혁명적 전쟁관점을 가지도록 교양하는 것이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정치사전 2』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5), p. 534.

⁴ “착취계급과 외래침략자들에게 순종하고 굴복하면서 온갖 형태의 투쟁을 반대하는 투항주의적사상경향이나 태도이다. 무저항주의는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를 때려 부수기 위한 결정적인 투쟁을 거부하고 억압자들과 제국주의자들과의 무원칙한 타협을 주장하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이른바 《평화애호》의 간판 밑에 부르주아지들, 제국주의자들과의 무원칙한 타협을 설교하는 부르주아평화주의는 무저항주의의 대표적인 표현이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정치사전 1』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5), p. 314.

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북한군 의식변화를 위해서는 외부 사조 유입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 군 집단과 민간인 집단의 의식 형성

북한에서 군 집단과 민간인 집단의 의식이 형성되는 환경은 현저히 다르다. 여기에는 ① 공적 및 사적일상의⁵ 보장수준, ② 집단의식화 내용, ③ 당국의 관심과 통제행태를 들 수 있다.

군 집단의 의식은 군 생활 일과표에 의해 일상이 진행되므로 사적일상이 현저히 제한되며 혁명적 군인정신을 사회에 전파하기 위한 당국의 관심과 이를 위반할 경우 군사형벌이 적용되는 강력한 통제 속에 형성된다.

<표 2> 군 집단과 민간인 집단의 의식형성

구분	군 집단	민간인 집단
의식화 방향	혁명적 군인정신	사회주의 애국주의 정신
의식화 통제	군사형법	형법
의식화를 위한 일상의 특징	군 생활 일과에 따른 공적 일상이 대부분을 차지	사회 일상에 따른 사적 일상이 일정부분 보장

위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군 집단과 민간인 집단의 의식형성 및 변화환경이 다르다. 이는 민간인 집단에 비한 군 집단의 의식변화의 핵심이나 평가기준이 달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계급의식과 북한군 의식변화의 의미

북한에서 구분하는 사상의식과 관련한 영역에는 혁명의식과 계급의식이 있다. 혁명의식이 혁명적 입장에서 사고하고 판단하며 혁명의 이익을 위하여 몸 바쳐

⁵ 공적 일상은 합법적인 환경 속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상이라면, 사적 일상은 반(半)합법적 및 비합법적인 환경 속에서 반(半)공개적으로 혹은 비공개적으로도 진행되는 일상을 의미한다. 북한주민들의 공적 일상은 직장생활이나 조직생활 등의 과정에, 사적 일상은 직장 퇴근 이후나 휴가, 사결, 무직 등의 과정에 이루어진다. 김영희, “일상의 정치화·군사화·신분화를 통해 본 북한주민 일상,” 『탈북 박사부부가 본 북한: 딜레마와 몸부림』 (서울: 매봉출판사, 2013), pp. 306~307.

싸우는 사상 감정을 의미한다면, 계급의식은 적과 자기 계급을 똑똑히 가려낼 줄 알며 착취계급을 미워하고 그와 끝까지 싸우며 자기의 계급과 사회주의제도를 사랑하고 그 제도를 공고화하기 위해 모든 힘과 지혜를 다 바치는 사상 감정을 말한다.⁶

혁명의식과 계급의식의 차이점은 어떠한 입장에서 사물을 판단하는가 하는 것인데, 특정 대상에 대해 전자가 사랑을 통한 희생을 강조한다면, 후자는 증오를 통한 희생을 강요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서 민간인 집단에 대한 의식화를 위해 강조되는 것이 혁명의식이라면 군 집단은 계급의식이다. 북한은 군인들의 계급의식 수준이 체제수호와 선순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계급의식이 낮아지면 평화에 대한 환상이 생겨나고 그렇게 되면 체제를 수호 하려는 각오가 희박해 진다고 보고 있다. 계급적 자각 없이 맹목적으로 잡은 총은 사실상 막대기만도 못하다고 강조하면서 군의 계급의식이 약화되는 것조차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이는 김정일의 발언과 이를 강화하기 위한 당국의 대책에서 찾을 수 있다.

군인들이 적아를 똑바로 가려 보지 못하고 적들에게 조금이라도 환상을 가지게 되면 혁명의 총대가 무디어 지고 사회주의를 끝까지 수호할 수 없습니다……인민군 군인들은 적과 평화에 대한 그 어떤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되며 모든 문제를 높은 계급적 안목과 대적관념을 가지고 대하여야 합니다. 인민군 군인들은 반드시 총대를 가지고 조국을 통일하고 적들과 싸워야 한다는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⁷

이러한 점에서 북한군의 의식이 변화했다는 것은 군인들이 잡고 있는 총대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군 의식변화의 시금석은 의식의 양적 변화가 아닌 내용적 변화, 즉 계급의식의 변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당국은 군인들 속에 계급의식을 강화하는데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계급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4대 행동지침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① 언제나 계급적 원수들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슴 불태워야 한다. ② 미제침략자들과 남조선 괴뢰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복수의 총창을 더욱 날카롭게 버려야 한다. ③ 높은 혁명적 경각성을 가지고 사회주의 제도에 반기를 드는 자들은 총대로 단호한 징

⁶ 조선인민군출판사, 『학습제강 5』 (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2003), p. 8.

⁷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초급선동일군들을 위한 강습제강: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선동사업을 더욱 힘 있게 벌릴데 대하여』 (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2002), p. 10.

별을 가해야 한다. ④ 언제나 높은 계급적 각성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예리하게 보고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되어 있다.⁸

해마다 계급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정치상학 강의가 이루어지는데 강의는 연중 전투정치훈련 기간인 12월 1일부터 익년도 4월 말까지, 그리고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사관들과 병사들을 대상으로 매주 8시간 이상 진행하고 있다. 북한당국이 군 집단의 계급의식 변화를 두려워하고 이를 막기 위해 관심을 두는 것은 한반도 분단구조 상황에서 군의 위치와 1980년대 말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 붕괴원인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다.

한반도는 대방의 타승에 의한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한 두 정권이 첨예한 이념의 대립 속에 대치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군의 안보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은 군인들의 계급의식 강화에, 남한은 주적의식 확립에 관심을 두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권 붕괴원인의 하나로 군의 계급의식이 변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1989년 12월 루마니아 사태 당시 군인들의 계급의식이 변질된 데로부터 인민의 탈을 쓰고 있는 원수들을 옳게 가려내지 못하고 이들과 연대해 결국 차우셰스쿠 정권이 붕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⁹

2. 외부 사조 유입의 의미와 유입 유형

가. 외부 사조 유입에 대한 북한의 이해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외부 사조에 대해 개념정리가 없이 논의하고 있다. 최근에 나온 박대광과 김진무의 연구에서는 외부 사조를 “다원적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바탕을 두고 내면화된 사회문화적 관념과 행위양식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¹⁰ 이러한 정의는 이데올로기적 측면보다 사회문화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중요하게는 어디서 유입되는 것인지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

외부 사조는 북한에서 많이 쓰고 있는 표현이므로 이에 대한 북한의 정의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사전에 따르면, ‘사조’는 사상적 조류란 말의 줄인 말로 특정한 사상이나 이론 등의 일반적인 흐름이나 경향을 말한다.¹¹ ‘외부’는 바

⁸ 위의 책, p. 10.

⁹ 이정민, “사상적 기강 해이 차단활동 강화: 북한의 정치교육 현장,” 『월간 북한』, 통권 486호 (북한연구소, 2012), pp. 122~123.

¹⁰ 박대광·김진무, “북한으로의 외부 사조 유입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p. 162.

깎을 뜻하므로 ‘외부 사조’라 하면 북한지역 밖에서 들어오는 특정한 사상조류를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사조는 외부 사조와 내부 사조로 구분할 수 있다.

북한은 온 사회의 주체화를 내세우면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사조에서 벗어난 행태를 보여 왔다. 따라서 외부 사조는 북한당국이 체제유지를 위해 내세우는 내부 사조와 근본적으로 대립된다. 북한이 말하는 일심단결은 외부 사조에 대한 내부 사조의 강력한 차단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외부 사조의 구분과 계급의식과의 관계

북한은 주민들의 의식변화 영역을 정치생활 영역과 물질생활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¹² 선행연구에서도 북한주민의 의식이 정치·사상을 우선으로 하는 집단중심의 사회지향적인 것으로부터 돈·물질을 우선으로 하는 개인지향적인 것으로 변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¹³ 이를 본 연구에 맞게 해석하면 정치·사상을 우선으로 하는 정치생활과 관련한 의식에서 돈·물질을 우선으로 하는 물질생활과 관련한 의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외부 사조 유형

구분	내용	영향
정치생활 관련 외부 사조	서구문물 관심, 탈영, 남한군 대비 북한군 정신전력 부정인식	염전사상, 무저항주의
물질생활 관련 외부 사조	군수물자 착복 및 유용, 장사, 대민피해, 탈영	개인이기주의, 및 배급주의

이에 따라 외부 사조는 정치생활 관련 외부 사조와 물질생활 관련 외부 사조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염전사상, 무저항주의 등을, 후자는 배급주의, 개인이기주의 등을 들 수 있다. 전자가 전쟁을 싫어하거나 두려워함으로써 체제수

¹¹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조선문화어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487. 북한적 현상에 대한 분석에서 물질적 영역과 정신적 영역의 구분이 필요하다. 예컨대 김영희는 북한주민 전반에서 나타나는 신체왜소를 식량이라는 물질적 측면의 부족과 함께 식품부족의 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한 저소비의식의 강요라는 정신적 측면의 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영희, 『푸코와 북한사회 신체왜소의 정치경제학』 (서울: 인간사랑, 2013) 참조.

¹²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문화어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455.

¹³ 임순희·이교덕, 『최근 북한주민의 의식변화와 북한체제의 불안정성: 화폐개혁 이후를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11) 참조.

호정신을 감소시킨다면, 후자는 돈에 대한 가치를 우선시 하게 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동경심을 갖게 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공식문헌에서는 “외부 사조가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과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내부로 부터 와해시켜 허물어 버린다면서 결국에는 혁명의 총대가 녹슬게 하고 혁명군대가 자기 사명을 다할 수 없게 한다”고¹⁴ 강조하고 있다.

적과의 싸움을 기본사명으로 하는 군인에게 있어서 계급의식은 생명과 같다. 계급적 자각과 높은 대적관념을 지닌 군인만이 자기 조국과 자기 인민을 해치려는 원수들을 추호의 용서도 없이 무자비하게 징벌할 수 있다. 그러나 계급의식이 마비되면 원수와 벗을 갈라 보지 못하게 되며 결국 이런 군인에게서는 원수에 대한 비타협성, 무자비성이 나올 수 없다.¹⁵

북한은 군인들 속에서 사상의 변질은 곧 군의 변질을 가져온다고 하면서 외부 사조가 군에 들어오면 군인들 속에서 적과 평화에 대한 환상이 조성되고 이것에 마비되어 적들에게 사상적으로 무장해제 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북한의 시각에서 볼 때, 북한군 집단에 대한 외부 사조는 계급의식을 약화시키는 직·간접적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정치생활 관련 외부 사조는 계급의식의 변화와 정의 상관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계급의식의 측면에서 보면, 전자와 후자는 계급의식을 약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데 전자는 직접적인, 후자는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

다. 외부 사조 유입의 유형과 결과

유입은 액체나 가스 등 유체가 어떤 곳으로 흘러든다는 뜻으로 외부 사조 유입은 외부로부터 사상조류가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외부 사조 유입을 논의하려면 유입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 지적해야 한다.

북한군에 대한 외부 사조의 유입은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과 내부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 글에서는 전자를 외부적 유입요인, 후자를 내부적 유입요인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살펴보면, 외부 사조 유입의 주체와 내용, 수단, 경로와 관련한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외부 사조 유입이 공급자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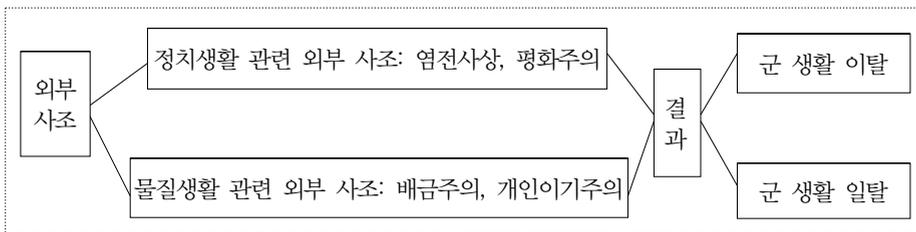
¹⁴ 조선인민군출판사, 『학습제강 3: 군관·장령』 (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2001), p. 6.

¹⁵ 조선인민군출판사, “적과 평화에 대한 환상을 없애고 원수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할 데 대하여,” 『학습제강 3: 병사·사관』 (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2003), p. 5.

혹은 수요자 중심인가 하는 문제도 제기된다.

한편 외부 사조 유입이 군인들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결과)은 무엇을 유도하는가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군 생활 이탈 혹은 이탈(탈영)이다. 군인들의 계급의식 약화에 정신생활 관련 외부 사조 유입이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면, 물질생활 관련 외부 사조 유입은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전자가 군 생활에 대한 이탈을 유도한다면, 후자는 군 생활에 대한 이탈을 촉진한다.

<그림 1> 외부 사조 유입에 따른 의식변화 결과



Ⅲ. 외부 사조 유입 유형에서 본 실태와 원인

1. 북한군인 이탈행위 실태

1998년부터 2010년까지 북한의 군 관련 교양자료를 보면 군인들의 이탈행위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당국의 대응수준도 높아지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1998년 경우 “어떤 경우에도 탈영과 무단외출, 구타와 인민들의 생명재산에 손을 대는 등 비행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교양하는 데 그쳤으나 2002년에 들어서면서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 강연이나 학습자료에는 군사규율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경우 군사형법에 따른 처벌이 가해진다면 법 규정까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예컨대 군사형법에는 “무단 외출하여 군사규율과 질서를 문란시킨 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며 탈영한 자는 10년까지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군인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2010년에 나온 북한의 군 관련 선전물에는 적들의 사상 문화적 침투책동에 말려드는 현상에 강하게 투쟁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색적인 사상과 생활풍조에 말려드는 것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와해전복하려는 적들을 도와주는 이적행위, 반역행위라고까지 강조하고 있다.

<표 4> 연도별 북한군인들의 일탈행위 실태

연도	내용	대책
1998년 ¹⁶	① 탈영, 무단외출, ② 강도, 강간, 소 도살 행위, ③ 묘지도굴 행위	교양 위주
2001년 ¹⁷	① 퇴폐적이고 반동적인 선전물을 보고 듣거나 유포시키는 현상, ② 적과 평화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안일해이하게 생활하거나 직책 상 이나 임무 수행에 마력을 내지 않는 것, ③ 물욕과 말라폰에 몰것어 장사질을 하거나 국가, 군수물자를 탐오랑 비하며 뇌물행위	
2001년 ¹⁸	① 강간범죄를 저지르는 것, ② 군품과 사회공동재산, 인민들의 개인재산을 훔치는 것, 구타와 집단구타를 하는 것, ③ 자유주의가 없어 지지 않고 있다면서 탈영하여 돌아다니는 것, ④ 이러저러한 이유로 무단외출	
2002년 ¹⁹	탈영, 무단 외출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으로 군사형법내용을 잘 알려 줄데 대해서 까지 강조	처벌 위주
2010년 ²⁰	① 적들의 텔레비전을 보거나 방송을 듣는 현상, ② 이색적인 녹음, 녹화물을 보거나 듣는 현상, ③ 종교, 미신행위를 하는 현상, ④ 이색적인 출판물을 보거나 유포시키는 현상, ⑤ 퇴폐적인 글이나 그림이 새겨진 물건짝들을 밀매하는 현상, ⑥ 이색적인 노래를 비롯하여 출처가 없는 노래, 왜곡된 노래를 부르는 현상	

위의 연도별 일탈행위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외부선전물 유포나 자유주의, 이색적인 문물청취 등은 외부 사조의 유입에 의한 것인데 최근 들어 이러한 현상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

가. 외부 사조 유입유형에서 본 실태

북한지역에 대한 외부 사조 유입은 외부적 및 내부적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외부적 요인에 의한 외부 사조 유입은 국내외 대북방송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탈북자들이 설립한 라디오방송이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국내에 입국한 북한주민들은 북에 남아 있는 가족·친척들에게 달려뿐 아니라, 중국산

¹⁶ 조선인민군출판사, “모든 군무생활을 군사규정과 교법의 요구대로 조직진행할데 대하여,” 『학습제강』 (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1998), p. 5.

¹⁷ 조선인민군출판사, 『학습제강 3: 군관·장령』, p. 7.

¹⁸ 조선인민군출판사, “군사규를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여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 기쁨을 드릴 데 대하여,” 『학습참고자료: 병사·사관용』 (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2001), p. 49.

¹⁹ 조선인민군 총정지국, 『초급선동일군들을 위한 강습제강: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선동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일데 대하여』 (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2002), p. 46.

²⁰ 조선인민군출판사, “적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을 철저히 짓부시고 우리식사회주의를 견결히 옹호고수하자,” 『학습제강: 병사·군관용』 (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2010), p. 5.

휴대폰 등 다양한 물품들도 전달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외부 사조가 유입되고 있다.

오늘날 북한사회에서 찾아보게 되는 남한 패션과 헤어스타일 따라하기, 남한 상품에 대한 선호 등 ‘한류(韓流)’ 바람은 물질생활 관련 외부 사조 유입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²¹ 이에 북한은 방해전파를 송출하는가 하면 당일군 및 보안부, 검찰소 성원들로 구성된 합동검열소조를 조직해 임의의 시각에 가택을 수색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나. 내부적 요인에 의한 외부 사조 유입

북한군 외부 사조 유입은 신병이나 외부와 접촉이 많은 병사, 군 일과생활에서 자유로운 직무나 여유가 있는 사관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북한의 군 관련 선전물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개별적 군인들이 사회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이들과 이색적인 녹화물을 보고 복사하여 유포시키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강조하고 있다.²²

신병들을 통해 유입되는 경우도 있다. 군 관련 교양자료에서는 지금 일부 신입 병사들은 사회생활기간에 가지고 있던 불건전한 생활풍조와 결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 현상을 열거하고 있다. 사회에서 부르던 출처 없는 노래를 각성없이 망탕 부르고 있는 현상, 정치적 색채가 모호한 유언비어를 여기저기 퍼뜨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²³

2. 소결: 외부 사조 유입에 대한 평가

가. 유입 유형에 따른 평가

외부 사조는 어떠한 요인에 의해 북한군에 유입되는가에 따라 주체와 내용, 수단, 경로, 한계에서 차이를 가진다. 외부적 요인에 의한 유입에서는 탈북자나 대북선전매체의 역할이, 내부적 요인에 의한 유입에서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군에 들

²¹ “한국 패션, 신부화장까지 인기…‘짜이말춤’과 서울 말투 따라해,” 『조선일보』, 2013년 8월 6일.

²²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초급선동일군들을 위한 강습제강: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선동사업을 더욱 힘 있게 벌릴데 대하여』, p. 33.

²³ 조선인민군출판사, “혁명의 군복을 입은 영예와 긍지를 안고 복무의 첫 걸음을 힘있게 떼자,” 『강연제강: 신입병사용』 (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2002), p. 8.

어간 초기 입대자나 감정제대(의병제대자)나 처벌제대(불명예제대자) 등 병사계층의 영향이 크다.

북한군에 외부 사조가 유입되는 경로는 주로 민간인들과 접촉에 따른 구전이며 특수한 경우 녹화물을 통한 청취도 들 수 있다. 외부 사조 유입에서 민간인과 접촉이 주된 경로로 된 것은 군에서 녹화물을 통한 청취가 어려운 것과 관련된다. 군부대 생활에서는 소지품 검사가 빈번히 있어 라디오나 기타 접촉수단을 개별적 군인이 지속적으로 소유하기 어려우며 규율생활에 대한 통제가 강하여 민간인들처럼 심야대에 청취할 수 없다.

부대의 병종과 근무환경, 근무하는 지역 등에 따라 차이나지만, 북한군 내부에는 보위요원, 정치부 요원 등이 활동하고 있어 특정수단을 통해 외부 사조를 지속적으로 접하기 어렵다.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민간인 집단에 비해 군 집단에는 외부 사조 유입이 적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서구풍조와 남한문화가 어느 정도 군에 유입되었느냐?”라는 질문에 탈북군인들이 ‘작은 편’이라고 응답(5점 척도에서 평균값이 2.31)한 것에서 알 수 있다.²⁴

<표 5> 유입의 유형에 따른 형태

구분	외부적 요인에 의한 유입	내부적 요인에 의한 유입
주체	북한이탈주민, 대북선전매체	초기 입대자 및 재입대자
내용	정치생활 및 물질생활 관련 사조	물질생활 관련 사조
수단	대북방송 및 전단지 살포	녹화물
경로	주로 대북선전매체 접촉	주로 주민접촉

나. 유입효과에 따른 평가

외부 사조 유입은 유형에 무관하게 군 생활 이탈자 및 이탈자를 발생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군부대가 위치한 지역 및 병종에 따라 차이 난다. 군 생활 이탈자는 생활조건이 어려운 강원도를 비롯한 군 밀집지역에서, 군 생활 이탈자는 북한으로 탈출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국경지역에 주둔한 군부대들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 사조 유입이 북한군인들의 계급의식 변화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교덕이 진행한 탈북군인 200명을 대상으로

²⁴ 이교덕, “북한주민 의식변화와 북한군,” (2013년 7월 23일 한국국방연구원 발표자료), p. 13.

한 설문조사결과가 보여준다.²⁵ 설문조사에 따르면, 북한군의 사상무장이 남한보다 월등하다는 응답이 70.5% 차지했다.

<표 6> 북한군의 사상무장이 남한군보다 어떠한가?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매우 월등	47	23.5	23.5	-
월등한 편	94	47.0	47.0	70.5
비슷한 편	42	21.0	21.0	-
열등한 편	12	6.0	6.0	-
매우 열등	5	2.5	2.5	8.5
합계	200	100.0	100.0	-

북한의 개별적 군인들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는가”에 대해 ‘원한다’는 응답이 68.5%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개개 군인들은 전쟁 발발을 원하는가?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매우 원함	41	20.5	20.5	-
원함	96	48.0	48.0	68.5
보통	43	21.5	21.5	-
원하지 않음	19	9.5	9.5	-
거의 원하지 않음	1	0.5	0.5	10.0
합계	200	100.0	100.0	-

또한 북한의 개별적 군인들이 “전쟁 승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67.5%가 ‘이길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²⁵ 위의 글, p. 13.

<표 8> 전쟁발발 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반드시 이길 수 있다	40	20.0	20.0	-
이길 수 있다	95	47.5	47.5	67.5
이길 수도 질 수도 있다	64	32.0	32.0	-
질 것이다	1	0.5	0.5	0.5
반드시 질 것이다	-	-	-	-
합계	200	100.0	100.0	-

국내에 들어온 북한주민 가운데서 탈북군인들은 보수적인 경향이 강한 집단임을 고려하면, 이들 속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북한군 집단 내에 염전사상이나 전쟁공포증과 같은 계급의식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러한 응답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까? 이는 전시환경에서 민간인 집단의 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쟁 시기 북한의 간부나 주민들이 “결사항전에 나설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이 (45.5%)로 높게 나타났다.²⁶ 군 집단이 아닌 민간인 집단에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 것을 보면 위에서 답한 탈북군인들의 응답에 신뢰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첫째, 북한군에 유입되는 외부 사조 유형 중에서 주로 물질생활 관련 외부 사조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탈영과 같이 군 생활에서 이탈되는 경우 염전사상이나 평화사상에 의한 것보다는 물질생활의 어려움에 의한 것이 적지 않다. 탈영자 대부분이 초급병사들이며 주되는 원인은 식량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⁷

탈영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대부분 배고픔이 주된 이유다. …(중략)… 경무관(현병)이 탈영병을 잡아 해당 부대에 데려가라고 해도 밥이나 잘 먹여 달라며 데려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²⁸

²⁶ 위의 글, p. 4

²⁷ 편집부, “북한군, 북한사회, 대남공작: 군내 성 균기 문란, 약탈, 마적단 변한지 오래,” 『월간 북한』, 통권 485호 (북한연구소, 2012), p. 106.

²⁸ 이정민, “북한군 내무기강 확립을 위한 정치사상교육 실상: 북한의 정치교육 현장,” 『월간 북한』, 통권 496호 (북한연구소, 2013), p. 106.

이는 물질생활 관련 외부 사조에 비해 정치생활 관련 외부 사조 유입의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북한군 의식변화는 의식수준의 약화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외부 사조가 내부적 요인에 의해 북한군에 유입되는 경우가 적으며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교덕의 연구에서는 북한군에 대한 서구문물의 영향이 5점 만점에서 2.16점으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으며 지역적으로도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역에 편중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²⁹

IV. 외부 사조 유입의 영향요인과 의식변화 실체

외부 사조 유입에 따른 북한군 계급의식 변화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표면에 드러나는 군 생활 행태의 변화와 함께 외부 사조 유입을 촉진 혹은 억제하는 요인에 대한 동시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1. 외부 사조 유입을 촉진하는 요인

가. 군부대 운영의 구조적 문제

오늘날 북한은 군부대 운영에서 외부 사조 유입이 촉진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부대 운영난에 따른 민간인과 접촉의 기회 증가, 군 생활 일과 통제기구와 외부 사조 유입 통제기구의 작동이 약화된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민간인과 접촉의 기회가 증가된 것이다. 북한군은 군부대 운영을 위해 민간인과 접촉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 이는 군부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시장에서 적지 않게 해결해야 하는데 북한사회에서 모든 정보는 시장을 통해 유통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인들의 의식변화가 군내에 자연스럽게 전파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당국도 두 가지 방향에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하나는 선군 정치와 더불어 사회구성을 군 집단과 민간인 집단으로 구분하고³⁰ 군 집단을 혁명

²⁹ 이교덕, 『북한군 기강해이』 (서울: 통일연구원, 2011), pp. 162, 168.

³⁰ 이는 북한이 사회적 담론을 전개함에 있어 군과 민간인 집단을 분리해석하고 있는 데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기간 북한은 혁명의 주체를 수령·당·대중의 통일체라고 정의하였으나 선군시대에 들어 혁명의 주체는 혁명의 수뇌부(김정일), 당과 군대, 인민의 통일체라고 주장, 이는 지난시기 군의 지위나 역할을 노동계급 또는 인민의 지위와 역할 속에 포함시켰으나 차별화 시키고

의 주력군으로 내세우고 혁명적 군인정신이 민간인 집단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군 집단의 각성 요구이다. 다른 하나는 군에서 특정한 대상을 제외하고는 민간인 집단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당국이 민간인과의 차단에 관심을 두는 것은 군부대에 “물자구입을 비롯하여 사회 사람들과의 접촉을 지적된 해당 지휘관들이 함으로써 군인들에게 규률을 위반할 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에 알 수 있다.³¹ 북한은 대대 정치지도원 급부터 민간인과의 자율적인 접촉을 허용하고 있으며 그 이하의 군관들은 특수한 경우, 상급에 보고하고 승인받은 상태에서 민간인과 만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외부 사조 유입을 통제하는 기구의 작동이 약화된 것이다. 북한에서 군인들의 정치적 동향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이원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하나는 보위사령부 소속 보위군관들의 활동이며 다른 하나는 총정치국 소속 정치군관들의 활동이다. 이들의 주요 임무의 하나는 군인들의 계급의식을 변화시키는 데서 핵심적 요인인 외부 사조의 내적 및 외적 요인에 의한 유입을 막기 위한 것이다.

사회전반에 물질생활의 어려움이 조성되고 정치 및 보위군관 할 것 없이 군관들에게 배급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조건에서 비리를 저지르게 되고 이로 인해 자기 업무를 원칙대로 수행해 나갈 수 없게 되었다. 일부에서는 군관생활을 ‘배급 타먹는(국가로부터 식량공급을 받는) 꽃제비의 생활’로 비웃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여성들이 군관들에게 시집을 가려 하지 않아 군 복무에 대한 영예감이 현저히 상실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군관들은 군 생활에 충실할 생각보다 제대 후 사회생활 밑천을 장만하려는 돈벌이에 관심이 많다. 군 상층부에서는 인사사업이나 승진 등에 ‘주색금(술과 여자, 돈)’있어야 한다는 증언도 제기된다. 또한 군수물자를 횡용 및 착복하거나 문제시 될 수 있는 사안을 눈감아줌으로써 이속을 차리는 등 부패가 발생하고 있다. 군 관련 강연 자료에서는 군에 공급하는 물자를 제대로 공급만 해도 군인들의 식량문제가 풀린다고 하면서 군량미의 유용사례로 ① 자동차 연유나 건설자재, 석탄과 교환하는 현상, ② 부대 식량으로 출장 여비나 술, 담배를 마련하는 현상 등을 지적하고 있다.³²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병욱·김영희, “선군시대 북한주민들의 사회적 신분변화,” 『정책연구』, 제162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9), pp. 41~44.

³¹ 조선인민군출판사, “모든 군무생활을 군사규정과 교범의 요구대로 조직진행할데 대하여,” 『학습계강』 (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1998), p. 9.

³² 조선인민군출판사, “일군들은 군인들의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자,” 『학습계강: 군관·장령』 (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2001), p. 34.

나. 외부 사조를 경험한 계층의 구성이 확대

북한에서는 2003년 전민복무제의 실행으로 노동현장 근무자들의 입대와 감정 제대(의병제대), 처벌제대(불명예제대) 등 만기 전 제대자들의 재입대가 이루어지고 있다.³³ 초기 입대자나 재입대자를 막론하고 군에 들어와서도 외부 사조에 대한 입대 전 관심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정 기회 속에 도출되는 상황이다.

북한군 외부 사조 유입에는 ‘장마당 세대’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은 199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로 군 병사 층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2008년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북한군의 연령구성에 병사 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³⁴ 16~19세가 19.7%, 20~24세가 40.9%인데 이들 대부분이 병사 층으로 61.6%, 즉 절반이상에 이르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출생 이후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 속에 정규적인 교육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하고 수령에 대한 찬가 대신 부모들의 돈, 장마당 이야기를 더 많이 들으면서 자란 세대이다. 태어나 청년기에 이르는 전 기간 경제난으로 인해 사상교양도 과거 세대만큼 정상적으로 받지 못했다. 이들은 당면한 삶의 안정이나 운명개척을 국가에 전적으로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각하였고 입대 전 외부 사조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던 세대이다. 북한의 장마당 세대는 군의 외부 사조 유입을 촉진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외부 사조 유입을 억압하는 요인

가. 외부 사조 유입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

북한군인들 속에는 외부 사조 유입과 관련한 경향이 발견되면 군법으로 처벌된다는 공포심이 작용하고 있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지만, 외부 사조 접촉을 경계하는 이유에 대해 가혹한 처벌 때문이라는 응답이 64.5%를 차지한다.³⁵ 앞서 서술하였지만, 북한 군부 내에는 외부 사조 유입에 대한 감시 및 통제를 맡고 있는 보위사령부 소속 군관과 총정치국 소속 정치군관 외에 비밀요원들이³⁶

³³ 북한은 2003년 「전민군사복무제」를 실행하면서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명의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하달하였다. 모든 남자들은 초모나이가 되면 무조건 군대에 나가야 한다는 것, 고등중학교 졸업생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에 대학이나 양성기관, 노동현장에 나간 경우에도 재학기간이나 근무기간 그리고 그것이 끝난 다음 반드시 군사복무를 해야 한다는 것, 감정제대나 처벌제대 등 만기 전 제대자들은 병을 고치거나 결함사항을 고친 다음 반드시 복무하던 부대에 가서 다시 만기를 채워야 한다는 것이다.

³⁴ 이석, “북한 군인은 정말 몇 명일까?” 『KDI정책포럼』, 제50호 (KDI, 2012), p. 5.

³⁵ 박대광·김진무, “북한으로의 외부 사조 유입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p. 172.

곳곳에 포진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들에 의해 외부 사조 유입과 관련한 활동이 쉽게 드러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작용하고 있어 내부적 요인에 의해 외부 사조가 군에 유입되기 어렵다. 특히 보위군관들은 외부 사조 유입과 관련한 활동이 발견되면 외부의 정보기관과 연결된 파괴암해 책동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보위군관이 속한 보위사령부 활동의 성과와 연계되기 때문이다.³⁷

외부 사조 유입과 관련한 활동으로 지목되면 본인에 대한 가혹한 처벌은 물론, 연좌제로 가족, 친인척들의 승진이나 대학진학 등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군인들 속에서는 특이한 상황(제대 앞둔 시기, 군 생활에 대한 환멸 등)에 직면하지 않고는 정치생활 관련 외부 사조 유입에 관심을 두지 않으려는 경향이 농후하다.

나. 공급자 중심의 외부적 유입요인 작동

북한군에 대한 외부 사조 유입은 당국의 강력한 통제뿐 아니라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는 외부적 유입요인과 관련한 것인데 대북선전 내용이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김일성 부자에 대한 믿기 어려운 사실을 논리적 비약을 통해 설명하거나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북한군인들의 불만이 공화국 영토나 고향에 대한 애착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북한군인들은 남한주민들에게서 풍기는 우월주의에 대한 경계심이 높으므로 한국의 위상에 대한 선전은 군인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지나치면 자존심을 건드려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할 수도 있다.³⁸ 그것은 북한군인들이 어릴 때부터 우상에 대한 배타심을 갖도록

³⁶ 해당 군부대 보위군관에 소속된 비밀요원은 자기가 근무하는 부대안의 병사, 군관, 장령들 속에서 제기되는 부정적 자료(김일성·김정일의 사상 반대, 권위 훼손, 북한체제 비방, 대한민국 찬양, 국가물자 및 군수물자 절취 등 군사규율 위반행위) 뿐 아니라 부대 내 군관, 장령들의 인맥관계까지도 구체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김선호, “북한군 보위사령부의 임무 및 역할 검토,” 『자유下』, 통권 제388호 (성우회, 2005), p. 27.

³⁷ 보위사령부는 ① 군대 안에서 김일성·김정일의 사상과 영도를 부정, 반대하거나 비방, 중상하는 등 당의 권위를 헐뜯고 훼손시키는 활동을 하는 자들을 색출, ② 대한민국이나 외국에서 파견한 간첩과 그 협조자들의 활동을 저지하며 이들을 검거, ③ 김정일의 군부대 방문 시 경호임무 담당, ④ 인민보안성과 유사하게 군대안의 주민등록 사업 진행, ⑤ 국경지역에서 검문, 검색 등 국경, 해안에 대한 경계근무 담당, ⑥ 군부 내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처리하는데 일반 범죄자는 군 검찰소에 이관하지만 정치범죄자는 직접 처리하고 있다. 김선호, “북한군 보위사령부의 임무 및 역할 검토” 『자유上』, 통권 제387호 (성우회, 2005), pp. 27~29.

³⁸ 김병욱·김영희, “타종교권 선교에 따른 북한선교,” 『사회과학연구』, 제18권 2호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0), pp. 378~379.

정신수양을 받아왔고 군 복무에서도 지속적인 세뇌교육을 받고 있어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이다. 앞의 사례는 북한군인들이 선호하는 것을 무엇이고(선호도) 이에 따른 이해가 어느 정도이며(이해도) 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측면(편리성)에 대한 고려가 없이 외부적 요인에 의한 외부 사조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는 박대광과 김진무의 연구에서도 지적되고 있다.³⁹

대북선전에서 나타난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유입된 외부 사조가 확산되지 못하고 심도있는 논의도 자체적 요인에 의해 차단되고 있다. 외부 사조를 접했어도 혼자만 알고 있거나 가족이나 막역한 친구 등 제한된 대상에만 유통되는 결과를 발생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외부정보를 혼자만 알고 있거나 가족, 친구들에게만 알렸다는 응답이 94.3%로 높게 나타난다.⁴⁰

3. 북한군 의식변화의 실제

군 생활에서의 이탈행위와 일탈행위의 의미는 다르다. 북한을 이탈하였다고 표현하는 것과 같이 ‘이탈’은 어떤 시공간적인 유형적인 범주에서 빠져나온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일탈’은 사회규범에서 일탈하였다고 말 하는 것처럼 가치관이나 언행 등 기존의 질서에서 벗어난 것을 가리킨다.

북한군인들의 군 생활 이탈(탈영)⁴¹은 탈북군인들의 결단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동경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먹거리 부족을 비롯해 물질생활의 어려움과 연계되어 있다. 이는 먹거리 문제가 해결되면 군 생활 일탈에 머무를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중요하게는 북한군 외부 사조 유입이 의식변화 핵심인 계급의식을 약화시키는 것과 거리가 먼, 배금주의나 개인이 기주의 등에 국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외부 사조 유입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 추동되고 있어 수직적·수평적 확산이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외부 사조 유입에 따른 북한군 의식변화는 의식의 질적 측면 보다 양적 측면의 변화와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북한의 민간인 집단의 의식변화와 동일하게 군 집단의 의식변화를 결론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부문 연구가 주장하는 것을

³⁹ 박대광·김진무, “북한으로의 외부 사조 유입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p. 184.

⁴⁰ 위의 글, p. 173.

⁴¹ 북한은 2008년부터 탈영자는 무조건 제대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제대 후 사회교화소에 이관되어 처벌받도록 하고 있는데 탈영자 수가 최근 들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서는 북한경제의 회생 속에 군 생활에서 배고픔이나 영양실조가 많이 사라진 것을 비롯해 물질생활 조건이 나아졌다는 증언이 제기되었다(국방연구원 내부세미나에서 한 탈북군인 증언, 2013.8.21).

북한군 의식변화라 하면, 과거에 비해 의식수준이 낮아진 것을 계급의식이 변화된 것으로 보는 일종의 착시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착시현상이 나오게 된 것은 북한주민 정신영역의 변화와 관련한 분야 연구의 관행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초 만해도 북한주민의 종교나 자본주의 인식변화 등의 연구주제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인식’변화를 주제로 한 연구 형태로 진행되었다.⁴² 그러나 2003년 종합시장의 공식적인 등장 이후 북한주민들의 사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의식’변화 차원의 연구로 전환된 상황이다. 북한군인들의 의식변화와 관련한 연구는 북한 체제의 내구력, 북한군의 기강해이 등의 주제와 더불어 직·간접적으로 다뤄지고 있다.⁴³

이 분야의 선행연구는 다음의 경향을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다. 북한주민의 인식 내지 의식변화로 볼 수 있는 행태를 제시하는 것에 관심을 둔 나머지 첫째, 대상의 특성에 따른 의식변화 핵심에 대한 논의가 없이, 둘째, 의식의 질적 및 양적 변화 측면에 대한 구분이 없이 의식이 변화되었다고 결론짓고는 향후 북한체제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식이다. 북한군 의식변화와 관련한 연구인 경우도 북한의 경제나 사회계층구조의 변화에 따라 주민들의 의식이 변화된 것만큼 군인들의 의식도 변화되었을 것이라는 판단이 아닌, 사실이라는 가정 하에 연구에 임하고 있다. 한마디로 냉소 혹은 위력 일면의 북한군 연구가 가져온 결과라 할 수 있다.

V. 결론

현재 북한군에 대한 외부 사조 유입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외부 사조 유입에 의한 북한군 의식변화는 염전사상, 무저항주의 등과 같은 계급의식 변화와는 거리가 먼 배금주의, 개인 이기주의적 경향의 양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외부 사조 유입이 내부적 요인에 의해 추동되지 않아 수직적·수평적 확산이 어렵다. 이는 군 생활의 이탈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군 집단의 이탈, 체제전환을 위한 세력으로 준비

⁴² 이우영, 『북한주민의 자본주의 인식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0); 정영태, 『북한군대의 대내외 정세인식 형성과 군대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7); 문장순, “북한의 종교인식 변화: 가능성과 한계,” 『남북문화예술연구』, 통권 제1호 (남북문화예술학회, 2007).

⁴³ 이주철, “북한주민의 남한방송 수용실태와 의식변화,” 『통일문제연구』, 제15권 2호 (평화문제연구소, 2003); 임순희·이교덕, 『최근 북한주민의 의식변화와 북한체제의 불안정성: 화폐개혁 이후를 중심으로』 참조.

하기 위한 활동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주민의 불만이 최고통치자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지 않고 집단행동과 연결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향후 외부 사조 유입에 의한 군 의식변화는 어떠한 방향에서 진행될까? 이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앞서 서술한 외부 사조 유입을 촉진 혹은 억압하는 요인의 작동과 결부시켜 살펴보아야 한다. 그것은 외부 사조 유입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지속되고 일부에서는 확대될 수 있는 잠재력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외부 사조를 경험한 병사계층이 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부 사조 유입을 통제해야 할 업무를 맡은 군관들이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 2000년대 이후 북한사회에는 CD 플레이어, DVD 플레이어, USB 등 다양한 형태로 디지털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유입되고 있어 이를 처벌만을 통해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외부 사조 유입을 억압하는 요인이 약화되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군의 계급의식이 높아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북한은 경제난에 따른 재래식 전략의 약화를 막기 위해 핵전력, 사이버전력을 강화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이에 따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핵보유는 군인들에게 지난기간 남북한 재래식 군사력 경쟁의 열세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므로 군의 사기진작과 계급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는 북한군인들의 계급의식변화가 물질생활 관련 외부 사조의 영향에 국한된다면, 위로부터의 변화가 없는 한 전쟁을 싫어하거나 두려워하며 나아가 한국군에 대한 동경의식을 가지는 것과 같은 질적인 의식변화로 전환되는데 많은 시간이 들 것임을 시사한다.

오늘날 북한군은 인민의 군대로써의 본연의 자세에서 멀어졌다고 볼 수 있어도 수령의 군대로의 본성은 변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북한군 의식변화의 핵심이 계급의식인 것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

■ 접수: 10월 22일 ■ 심사: 11월 06일 ■ 채택: 11월 26일

참고문헌

1. 단행본

- 국방부. 『정신전력 지도 지침서』. 서울: 국방부, 1997.
- 김영희. 『푸코와 북한사회 신체왜소의 정치경제학』. 서울: 인간사랑, 2013.
- 이교덕. 『북한군 기강해이』. 서울: 통일연구원, 2011.
- 이우영. 『북한주민의 자본주의 인식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0.
- 임순희·이교덕. 『최근 북한주민의 의식변화와 북한체제의 불안정성: 화폐개혁 이후를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11.
- 정영태. 『북한군대의 대내외 정세인식형성과 군대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7.

2. 논문

- 김병욱·김영희. “선군시대 북한주민들의 사회적 신분변화.” 『정책연구』. 제162호, 2009.
- _____. “북한사회 수령교와 타종교권 선교에 따른 북한선교.” 『사회과학연구』. 제18권 2호, 2010.
- _____. “일상의 정치화·군사화·신분화를 통해 본 북한주민 일상.” 『탈북 박사부가 본 북한: 딜레마와 몸부림』. 서울: 매봉출판사, 2013.
- 김선호. “북한군 보위사령부의 임무 및 역할 검토.” 『자유 上』. 통권 제387호, 2005.
- _____. “북한군 보위사령부의 임무 및 역할 검토.” 『자유 下』. 통권 제388호, 2005.
- 문장순. “북한의 종교인식변화: 가능성과 한계.” 『남북문화예술연구』. 통권1호, 2007.
- 박대광·김진무. “북한으로의 외부 사조 유입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국방정책연구』. 제28권 1호, 2012.
- 이교덕. “북한주민 의식변화와 북한군.” 2013년 7월 23일 한국국방연구원 발표자료.
- 이 석. “북한 군인은 정말 몇 명일까?” 『KDI 정책포럼』. 제50호, 2012.
- 이정민. “사상적 기강 해이 차단활동 강화: 북한의 정치교육 현장.” 『월간 북한』. 통권486호, 2012.
- 이주철. “북한주민의 남한방송 수용실태와 의식변화” 『통일문제연구』. 제15권 2호, 2003.
- 정상돈. “동독이탈주민을 통한 대동독 외부 사조 유입사례: 교훈과 시사점.” 『동북아안보 정세분석』. 2011.

3. 북한 자료

- 과학 백사사전 출판사. 『정치사전 1, 2』. 평양: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1985.
-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조선문화어 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 한성일. 『의식에 대한 주체적 이해』.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3.
- 조선인민군출판사. 『학습제강 3: 군관·장령』. 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2001.
- _____. 『학습제강 5』. 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2003.
-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초급선동일군들을 위한 강습제강: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선동사

- 업을 더욱 힘 있게 벌릴데 대하여』. 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2002.
- 조선인민군출판사. “적과 평화에 대한 환상을 없애고 원수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할데 대하여.” 『학습제강 3: 병사·사관』. 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2003.
- _____. “모든 군무생활을 군사규정과 교법의 요구대로 조직진행할데 대하여.” 『학습제강』. 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1998.
- _____. “군사규률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여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 기쁨을 드릴 데 대하여.” 『학습참고자료: 병사·사관용』. 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2001.
- _____. “적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을 철저히 짓부시고 우리식사회주의를 견결히 옹호고수하자.” 『학습제강: 병사·군관용』. 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2010.

4. 기타 자료

『조선일보』.

Abstract

A Study on the Influence on the Influx of Capitalist Elements and Alternation of Consciousness of Korean People's Army

Byeong-Uk Kim & Young-Hui Kim

This paper analyzes the influence on the influx of capitalist elements and alternation of political consciousness in the Korean People's Army (KPA). Class consciousness of the KPA plays a key role in maintaining the North Korean regime under the Military-first policy. Through the interview with 200 North Korean defectors and materials for ideological education for the KPA, I examine that although capitalist elements such as egoism and mammonism are growing to the KPA, those have not influenced on fighting-fit and combat capability against South Korea and the US, which means that the KPA has not been afraid of war with South Korea and the US. Therefore, some arguments that assert that the combat capability of the KPA is becoming weak due to capitalist elements are not reasonable and realistic.

Key Words: Korean People's Army, Capitalist Elements, Class Consciousness, Alternation of Consciousness, Combat Capability

